12월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다.

이 시기면 반에는 이미 서로 맞는 애들끼리 그룹이 이루어져 있다.

1, 2학기 동안 친해져서 끈끈하게 뭉쳐있는 그들만의 놀이터.

거기에 느닷없이 안 친한 누가 들어와서 ‘나도 끼워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학년이 끝나기 고작 몇 주밖에 안 남은 12월에.

“......하아.”

쉬는 시간, 반 애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지만, 결과는 끔찍했다.

경계하는 눈, 어색해하는 미소. 쥐 죽은 듯이 사라진 대화.

아직도 반 친구들의 반응이 눈에 선하다.

죽을 만큼 창피해서 뛰쳐나와 자판기 앞으로 피난을 왔다.

대체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는 걸까. 무작정 친해지고 싶다고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였을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고, 자연스럽게 친해져야 하는데.

내가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오늘 겪은 일만 해도 이미 트라우마다. 나중에 무조건 악몽으로 나오겠지.

하아.

나오라는 답은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온다.

멀리서 내 우울한 기분과는 정반대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판기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1학년 애들이 뭉쳐서 얘기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저렇게 즐겁게 떠들 수 있는 걸까.

슬쩍 보니 1학년 그룹의 중심에서 손뼉 치며 웃는 누군가가 눈에 띄었다.

그룹이 태양계라면 태양처럼 중앙에서 모두의 관심을 받는 한 명. 하얀 롱패딩을 걸친 베이지색 머리.

채아람이다.

채아람이 무슨 얘기를 꺼내고 걔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또 퍼졌다.

내가 다가갔을 때 어색하게 웃던 우리 반 애들의 웃음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 채아람이 태양이라면 난 명왕성이니까. 태양계라는 그룹에서 퇴출당한 것까지 생각하면 딱 맞네.

...음료수나 한 잔 뽑아서 마시고 돌아가야겠다.

가슴도 답답한데 시원한 탄산음료나 하나 뽑아야지.

덜컹.

자판기가 떨군 음료수를 주웠을 때.

“선배~!”

뒤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언제 다가왔는지 채아람이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그,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

“선배도요? 저도 그러려고 나왔는데.”

“교실 공기가 답답해서 안에 있기 싫더라고요.”

“겨울이라서 창문 열면 애들이 춥다고 난리잖아요. 답답하지도 않나 봐?”

“그래서 그냥 확 창문 열어버리려다 제가 나왔어요.”

내가 멋쩍게 웃기만 해도 채아람은 즐겁게 재잘재잘 떠들기 시작했다.

너무 당연하게 말을 걸고 얘기해서 마치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것 같은 기분이다.

알게 된 건 겨우 며칠밖에 안 됐는데.

....어.

잠깐만.

충격적인 진실이 머리를 강타했다.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고, 자연스럽게 친해진다.

채아람이 방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걸 해냈잖아.

이게 인싸인 건가?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걸 순식간에 해낸다고?

채아람. 무서운 여자애...!!

“그런데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응? 그렇게 보여?”

“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냐, 그냥. 좀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그걸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넘어가려고 했지만 채아람은 놔주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이 뭔데요?”

“고민 아니라니까.”

“선배 얼굴에 저 고민 있어요, 라고 쓰여 있어요.”

“그니까 그냥 말해봐요! 제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정말 채아람이 도움이 되려나.

그래. 나랑은 다르게 친구도 많아 보이니까.

정말 핵심적인 조언을 줄지도 모른다.

약간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물어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그, 있지. 내가 낯가림이 많아서.”

“누구하고 친해지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지.”

“고민은 아니고. 그냥 생각만 조금.”

“흐음~”

“왜, 왜 그렇게 봐?”

채아람이 눈을 게슴츠레 뜨고 날 바라본다. 장난기 섞인 웃음과 함께.

“뭔가 했더니 겨우 그거였어요?”

“나한텐 심각한 고민이었거든.”

“에이, 뭘 그런 걸로 고민해요!”

채아람이 가볍게 팔을 툭 쳤다.

나한테는 큰 문제거든? 넌 친구가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겠지!

“그러니까 선배는 친해지고 싶다는 거죠?”

“뭐, 그렇지.”

“친해지는 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오..”

친구가 많아서 그런지 시작부터 믿음이 간다.

“알려줄까요?”

“응.”

“그럼 대신 수업비로 그거 주세요.”

채아람이 내가 뽑은 탄산음료를 가리켰다.

“유료였어?”

“공짜라고는 말 안 했지롱.”

뭐 이런 사기가 다 있어. 알려주지도 않고 돈 내라니.

참 나. 어이없지만 속는 셈 치고 믿어본다.

“그래, 그럼 한 번 들어나 볼게.”

채아람은 받은 음료수 캔을 곧바로 열어 호쾌하게 들이켰다.

“으으~!! 시원해!”

“그래서 방법은 뭐야?”

“아, 그거요?”

채아람은 한 입 마신 캔을 내게 보여줬다.

“이거에요.”

“뭐?”

“아뇨. 서로 친해지는 데는 선물이 최고라구요.”

“선배. 음료수 사주신 거 잘 먹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친해졌으니까 다음에 보면 아는 척하기에요!”

채아람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나버렸다.

아니, 나는.

...너 말고 우리 반 애들을 말한 건데.